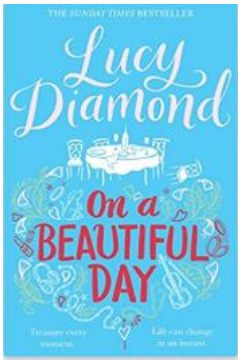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ON A BEAUTIFUL DAY
가제 : 어느 눈부신 날에
저자 : Lucy Diamond
출판사: Macmillan
발행일: 2018년 1월 11일(전자책)/하드커버 2019년 1월
분량 : 496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페이지를 넘길 대마다 따뜻한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이야기" – 베스트셀러 『The Queen of Wishful Thinking』의 작가 밀리 존슨**
*** "따뜻하고, 위트 있고 지혜가 담긴 책" – 「데일리 메일」**

파란 잎사귀와 눈부신 햇살이 곧 여름이 다가올 거라 예고하는 5월의 어느 주말, 몇 년째 서로의 베스트프렌드가 된 네 명의 친구들이 한 자리에 모인다. 음악교실 강사로 일하는 인디아와 출산 전 요가교실에서 우연히 만나 친구가 된 이브, 이브의 학교 동창인 조와 조의 여동생 로라까지, 네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은 누군가의 집에 몇 시간이고 눌러 앉아 가장 걱정되는 일, 기쁜 일, 마음 아픈 일을 함께 나누며 살아왔다. 이 날은 인디아의 서른아홉 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맨체스터 시내에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약속 장소로 정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인디아는 유난히 반짝이는 햇살을 마음껏 즐기기 위해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는다. 곧 나머지 세 사람도 하나 둘 도착하고, 저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누군가와 열심히 통화를 하면서 수줍게 얼굴을 붉히던 조를 눈 여겨 봐두었던 인디아는 음식 주문이 끝나자마자 얼른 털어놓으라고 조를 종용했다.

몇 개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조를 세 친구가 끌고 나와 쇼핑도 하고, 함께 울면서 위로해주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볼까지 발개질 정도로 조를 웃게 만든 사람이라니! 예상대로, 조는 누군가와 새로 연애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레 털어 놓는다. 모두 귀를 쫑긋 세워 드라마 같은 조의 새 남자친구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그 때, 조용히 웃으며 차마 털어놓지 못할 고민을 떠올리던 이브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다. 저 멀리서 파란색 트럭이 이쪽으로 쏜살같이 다가오고 있었다. 끽, 하는 거친 쇳소리가 상점들이 즐비한 골목 전체에 울려 퍼지자마자 여기저기서 고함치는 사람들의 음성이 들려오고 네 사람이 앉은

테이블 쪽으로 돌진하는 트럭을 발견했을 때는 너무 놀라 일제히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이브의 눈에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허연 눈동자와 오른손으로 꽉 움켜진 왼쪽 가슴이 다 보일 정도로 바짝 다가온 트럭은 다음 순간 홱, 방향을 틀어 바로 맞은편 꽃집과 충돌했다. 길가에 내놓은 꽃과 화분들이 모두 짓이겨지고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로 모두 어안이 벙벙해졌다. 하마터면, 정말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로라와 조, 이브, 인디아는 그 트럭에 그대로 깔릴 뻔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을 뻔한 아찔한 이 사고는 네 사람에게 생각지도 못한 영향을 남긴다. 결혼하고 수년 째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애를 썼지만 실패만 거듭하던 로라, 3주째 가슴 한쪽에 뚜렷하게 잡히는 딱딱한 멍울이 혹시 암일 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던 이브,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한 20여 년 전의 사건을 가슴에 묻고 살다 이 사고 때문에 겨우 묻은 과거를 되살리게 된 인디아, 그리고 완벽하게 잘 맞는 남자를 만났지만 그 남자의 딸이 의외의 복병이 되어버린 조. 이 네 사람의 혼란스러운 삶에 들이닥친 사고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의 기준을 바꿔 놓았고, 네 사람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시작한다.

정말 암이면 어쩌나, 걱정만 하던 이브는 죽음이 목전까지 온 경험 덕분에 정신을 차리고 결국 병원을 찾아간다. 결과는 걱정했던 그대로였지만, 일찍 발견해서 그리 길지 않은 치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좋은 소식도 함께 듣는다. 자동차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릭과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며 이혼의 아픔을 달래던 조는 릭의 딸, 메이지가 나타나면서 큰 위기를 겪는다. 겉으로는 얌전하고 말 잘 듣는 아이 같지만 사사건건 남을 조종하려 하고 마음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고집스러운 성격의 메이지는 조가 조심스레 꿈꾸던 릭과의 새로운 미래까지 접고 싶을 만큼 골치 아픈 존재였다. 그러나 죽음의 문턱을 넘을뻔한 기억은 조에게 전과 다른 시각을 선사하고, 힘들지만 조금씩 메이지와 맞춰 나가는 법을 터득한다. 거듭된 유산과 치료 실패로 부부 사이까지 틀어져버린 로라는 남편 맷과 헤어지기로 결정한 직후, 그토록 바라던 임신 소식을 듣게 된다. 그러나 이미 다른 여자와 만나기 시작한 맷은 놀라고 기뻐하면서도 새로 시작된 사랑을 버릴 수 없다는 뜻을 전하고, 로라는 엄청난 실망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을 인정하려고 노력한다. 인디아는 큰일 날 뻔했던 사고 이후, 20년 만에 로빈과 우연히 마주친다.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두 사람은 대학입시를 코앞에 두고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고, 비극적인 이별을 해야 했다. 음대 진학도 포기하고 이후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둘 다 엉망이 되어버린 삶을 늘 수습하며 살던 두 사람의 재회는 과연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 누구나 인생에서 각기 다른 형태로 맞닥뜨리는 당혹스러운 사건들과 예기치 못한 일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지, 네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 따뜻하고 기분 좋은 소설이다.

<저자 소개>

루시 다이아몬드(Lucy Diamond)는 바스에서 글을 쓰고 있다. 『The Secrets of Happiness』, 『Summer at Shell Cottage』, 『The Year of Taking Chances』 등 여러 편의 베스트셀러를 발표했다. 발표한 소설들은 15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영국에서만 220만 부 이상 판매됐다.

제목 : WHAT RED WAS

가제 : 그 여름의 파티가 남긴 것

저자 : Rosie Price

출판사: Harvill Secker

발행일: 2019년 5월 2일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출판사 다섯 곳의 치열한 경매를 거쳐 출판 계약 체결, 네덜란드 판매 완료**

*** 트라우마, 우정의 한계, 성폭력의 파괴성을 날카로운 위트로 영리하게 풀어낸 데뷔 소설**

맥스와 케이트는 대학 첫 학기가 시작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처음 만났다. 공통점이라곤 같은 기숙사 건물 같은 층에 산다는 것뿐, 두 사람은 살아온 과정도 성격도 완전히 달랐다. 맥스는 어딜 가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관심을 받았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파티며 술자리를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성적은 늘 최상위권을 유지하는 능력자였다. 게다가 유명한 재벌 가문인 리폰스의 대를 이을 주인공으로 이미 소문이 자자했다. 맥스의 아버지 윌리엄은 삼형제 중 둘째였지만 형 알레스데어는 젊은 시절부터 우울증을 앓았다. 몸도 마음도 강철처럼 강인한 사람들이 그렇듯, 맥스의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병 같은 건 질병으로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약해빠진 부적격자로 취급하는 사람이라 알레스데어는 이미 눈 밖에 난지 오래였다. 삼형제 중 막내, 루퍼트는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어서 손자는 알레스데어의 아들 루이스와 윌리엄의 아들 맥스, 둘이었으나, 여러모로 인정받는 윌리엄의 아들 맥스가 리폰스 가문의 차세대 핵심이 될 것으로 모두가 생각했다.

이에 반해, 케이트는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손에서 소박하게 자랐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고, 혼자 조용히 잠을 자거나 음악을 듣고 생각에 잠기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은 맥스가 케이트의 옆방에 사는 친구 창문에 장난으로 공을 던지려다 케이트의 방 창문을 깨뜨리는 작은 소동이 벌어지면서 처음 얼굴을 마주한다. 방으로 찾아와 깎듯이 사과하면서도 “학교 시설팀에 내가 깼다고 굳이 얘기해야 할까?”라고 묻는 맥스에게 케이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그래야지.”라고 답했고, 맥스는 조금 실망하더니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런 관계, 사회적인 지위 덕분이든 자신의 영리한 두뇌와 능력 덕분이든 항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항상 조금 지나치다 싶은 배려를 받으며 살아온 맥스와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상대방의 영향력을 쓸데없이 경외하지 않는 케이트는 서로에게서 특별한 매력을 느낀다. 이성간의 매력보다는 지금껏 함께 어울려보지 못한 유형의 사람이라 궁금하고, 새로운 매력을 느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애 감정 없이 매일 아침마다 함께 수업을 들으러 가고, 밥도 먹고, 심지어 단둘이 여행을 가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순수한 친구로 깊은 우정을 쌓아간다. 그러나 4년간 차곡차곡 쌓인 맥스와 케이트의 우정은 졸업을 앞두고 이제 사회에 나가 새 출발을 하게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된 파티에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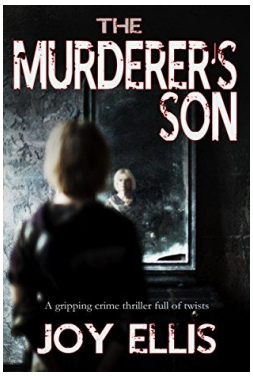
두 사람이 절친하다는 사실은 맥스와 케이트 가족들 모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맥스의 부모님은 케이트에게 흠뻑 빠져서 딸처럼 예뻐했다. 유명한 영화감독인 맥스의 엄마는 아들이 케이트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둘의 관계가 다른 친구들과는 차원이 다른 관계라는 사실을 일찌감치 눈치챘다. 조금도 꾸미지 않고, 잘 보이려고 애쓰지도 않고 편하게 모든 걸 보여줄 수 있는 대상, 맥스에게 그런 사람이 케이트라는 사실을 알아챈 것이다. 케이트의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듣기로는 곱게 자란 도련님인줄만 알았던 맥스는 가끔 집에 놀러 올 때면 자기 엄마가 수집해둔 옛날 영화 잡지며 음반 중에 케이트와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을 골라오기도 하고, 별것 아닌 소박한 대접도 고마워할 줄 아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다. 그래서 케이트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은 케이트뿐만 아니라, 예쁘고 소중했던 둘의 관계를 응원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

리폰스 집안의 여름 별장에서 벌어진 문제의 파티에 초대받은 케이트는 맥스의 권유대로 그의 사촌인 루이스의 차를 얻어 타고 가기로 했다. 맥스는 먼저 가 있는 상태였고, 케이트는 평소 맥스와 대화를 나눌 때면, 맥스가 루이스를 속으로 경계하는 듯한 인상을 여러 번 느껴서 왜 그런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집안 행사에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루이스가 이번에는 온다고 하니 다시없을 기회라고 여긴 케이트는 기숙사 앞으로 데리러 온 루이스와 처음 만난다. 말수가 적고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케이트는 점점 그가 썩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매너도 좋고 불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루이스에게는 할아버지에게 대놓고 외면당하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강한 분노가 늘 마음 한 켠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비뚤어진 욕망에 케이트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 짓밟힌 희생자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리폰스 가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자신들의 가문의 힘으로, 특권으로 영원히 묻어버리려 한다.

작가는 극심한 트라우마로 조각나버린 기억, 피해자의 내면을 갉아먹는 성폭력의 무서운 힘을 차분한 어조로 그려 나가면서 뿌리 깊은 특권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양면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날카롭게 조명한다. 무거운 주제를 술술 읽히는 문장으로 풀어낸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로시 프라이스(Rosie Price)는 캠브리지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도서 에이전시에서 3년간 업무 보조로 일했다. 현재는 런던에서 과외 강사로 일하면서 글쓰기에 주력하고 있다.



제목 : THE MURDERER'S SON
가제 : 살인자의 아들
저자 : Joy Ellis
출판사: Joffe Books
발행일: 2016년 9월 18일
분량 : 332 페이지
장르 : 범죄스릴러소설

*** 영국에서 91,000부 이상 판매,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6위**
*** 아랍어, 체코어 번역 계약 체결**

엽서에나 나올법한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끔찍한 살인이 벌어진다. 피해자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던 부부였다. 살인자가 휘두른 칼에 처참히 토막 난 시체로 두 사람이 발견되고 22년이 지난 어느 날, 같은 지역에서 또 다시 한 여성, 앨리슨 플릿이 살해당한 시신으로 발견된다. 수사를 맡은 로완 잭맨 형사와 마리 에반스 형사는 직업상 범죄 현장을 숱하게 접했지만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잔인한 살해 현장에 충격을 받고 첫날 수사를 밤늦도록 이어가던 중,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한다. 경찰서를 찾아온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청년은 마리와 대면하자마자 자신이 앨리슨을 죽였다고 자백한다. 그러나 30분간 진행된 첫 심문에서 두 형사는 대니얼이라는 이 청년의 진술에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는 사실을 직감한다.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현장과 살해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뚜렷한 살해 동기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이상했다. 그는 왜 제발로 찾아와서 자신을 살인자라고 한 걸까? 잭맨과 에반스 형사는 피비린내 나는 이 사건을 파고들수록 20여 년 전, 링컨셔에서 일어난 연쇄살인과 희한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앨리슨 플릿이 유일한 희생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두 형사의 예감은 사실로 드러난다.

1993년 9월에 벌어진 살인은 새벽 일찍 조깅을 하던 마을 주민을 통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은 하인스 농장 쪽 시골길을 달리던 그는 새로 장만한 조깅화에 기름때가 잔뜩 묻은 것을 발견하고 짜증을 내며 발길을 멈춘다. 항상 열려 있는 농장 대문을 통해 흘러나온 기름 웅덩이를 밟은 바람에 추리닝 아래에도 검붉은 얼룩이 묻고 말았다. 그런데 얼룩에서 유난히 붉은 빛이 도는 것을 보고 킁킁 냄새를 맡아본 그는 수상한 기운을 느끼고 농장 건물로 달려간다. 익히 잘 아는 농장주인, 조지 하인스가 바로 문 앞에 엎드린 자세로 쓰러져 있고, 무릎 아래는 온통 피범벅이었다. 기겁해서 그 길로 경찰에 연락한 이 주민은 조금 더 안쪽, 집안에 훨씬 더 잔혹한 사건 현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행히 알지 못했다. 조지 하인스의 아내, 리디아가 토막 난 시신으로 발견된 부엌에는 누군가를 맞이한 듯 머그컵에 담긴 커피 두 잔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 아무 의심 없이 커피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리디아를 육식 동물마냥 갈가리 찢어 놓은 것이다. 농장에 함께 살던 관리인 이언 패로우와 하인스 부부의 두 어린 아이들을 돌봐주고 가사 일도 도와주던 프랑스 출신 여성, 프랑수아 테이어가 유력한 용의자로 수사선상에 오른다. 영

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놓은 이 인면수심 범죄의 범인은 하인즈 가족과 가장 가까이서 생활하던 프랑수아로 밝혀진다. 체포 후에도 한 치의 동요도 없이 입가에 엷은 미소와 즐거운 듯한 눈빛으로 언론사 카메라를 주시하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살인자였다.

2015년에 링컨셔에서 또 다시 발생한 살인은 여러 모로 하인스 부부의 살인과 닮은 구석이 많았다. 살해 당한 앨리슨 플릿은 리디아 하인스처럼 '부지런한 지역 일꾼'으로 온 동네 일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 교회 자선행사는 물론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두 팔을 걷어 부치던 앨리슨은 언뜻 보기에도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거나 미움을 받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앨리슨을 죽였다고 자백한 대니얼도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 굳이 앨리슨을 죽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대니얼의 이해하기 힘든 살해 동기는 그가 입양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세한 내막이 드러난다. 잭맨 형사와 에반스 형사는 대니얼을 어릴 때 입양했다는 양어머니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다. 그는 삼형제 중 막내였고 마약 중독이던 친모가 세 아이들과 함께 자살 시도를 했었다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차에 올라 배기구에서 나오는 연기가 차 안에 들어오도록 호스를 연결한 채 내부를 밀폐했는데, 다 죽고 막내 대니얼만 질식사하기 직전에 구조되어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극심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뇌기능이 손상되어 한동안 사고 능력이 크게 소실된 대니얼은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한 다섯 살 이전의 기억을 모두 잃었다. 대니얼의 양어머니는 그의 친모가 죽기 전, 어린 대니얼이 마약 중독자들 사이에서 온갖 학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입양 당시 사회복지사에게 전해 들었다며 차라리 기억하지 못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기억이 지워진 그 자리에는 엉뚱한 착각이 깊이 뿌리내리고 말았다. 자신의 생모와 잃어버린 기억을 찾는 일에 유독 집착하던 대니얼은 양어머니의 집 다락방을 아예 본격적인 조사 본부로 꾸며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걸어 잠가버렸다. 그 다락방을 조사한 두 형사는 대니얼의 섬뜩한 착각을 발견한다. 그는 22년 전, 하인스 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프랑수아 테어어가 자신의 친모라 확신했다. 스스로를 '살인자의 아들'로 결론 내린 대니얼은 밤마다 피범벅이 된 살해 현장이 등장하는 꿈에 시달리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머릿속 현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 것이다.

그러나 자백 외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대니얼은 풀려나고, 며칠 뒤 링컨셔에서 연이어 또 다른 살인 사건이 벌어진다. 진범은 누구일까? 추가로 희생된 두 여성의 몸에서 발견된 항우울제 성분이 처음 살해당한 앨리스 플릿의 시체에서도 발견된 것은 우연의 일치일까?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두 형사의 끈질긴 추적이 돋보이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조이 엘리스(Joy Ellis)는 런던의 저명한 꽃집 'Constance Spry Ltd'에서 견급 과정을 마친 후 개인 꽃집을 운영해 왔다. 그리스에서 글쓰기를 공부한 뒤 당시 강사였던 수 타운센드(Sue Townsend)의 권유로 글을 쓰기 시작해 영국에서만 현재까지 총 판매고 120만 부 이상을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저서로는 『THE NIKKI GALENA』 시리즈를 비롯해 『Beware the Past』, 『Guide Star』 등이 있다.

제목 : THE THINGS WE DON'T SAY
가제 :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
저자 : Ella Carey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7월 1일
분량 : 303 페이지
장르 : 역사소설

* 아마존 베스트셀러 / "예술과 음악, 그리고 비밀을 지킬 때 따르는 값비싼 대가를 열정적으로 묘사한 이야기. 작가는 두 여성의 삶과 두 시대를 능수능란하게 하나로 엮었다." - 베스트셀러 『What Remains True』의 작가 재니스 토머스
* "사랑과 예술, 거짓에 관한 매혹적인 소설. 두 여주인공과 각기 다른 두 시대의 풍경을 마치 직접 보는 것처럼 일깨웠다." - 베스트셀러 『The Castle of Dreams』의 저자 엘리스 맥쿤

사회적인 규범과 예의범절을 중시하던 1900년대 초, 누구보다 자유를 갈망하는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그룹을 이룬다. 화가로 활동하던 엠마는 법적으로는 남편이지만 서로의 자유로운 연애를 존중하기로 하고 편한 친구 사이로 남은 올리버의 소개로 이 모임에서 평생의 사랑이 된 한 남자를 만난다. 이미 영국 전역에서 피카소에 버금가는 천재적인 화가로 명성을 날리던 패트릭 애덤스가 그 주인공이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서로에게 깊이 끌린 엠마와 패트릭은 두 번의 2차대전과 엇갈린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를 반복하지만 패트릭이 먼저 숨을 거둘 때까지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을 평생 놓지 않는다. 그러나 엠마가 90대가 된 어느 날, 수십 년간 엠마를 지탱해준 패트릭과의 사랑이 어쩌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엠마의 예술적인 재능을 물려 받아 음악가로 발을 디딘 손녀 로라는 할머니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이 믿기 힘든 의혹을 직접 풀기로 마음먹는다.

엠마와 패트릭이 처음 만나 특별한 사랑을 키우던 1900년대 초반과 로라의 진실게임이 시작되는 1980년대를 오가며 그림에 얽힌 수수께끼를 추적하는 이 소설은 런던에 실제로 존재했던 유명한 예술 단체, '블룸스버리 그룹'을 토대로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접목시켜 사회를 변화시키려던 젊은이들의 열정적인 노력과 그들이 겪어야 했던 대가를 로맨스, 미스터리 요소와 잘 버무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1980년, 왕립 아카데미에서 2년째 바이올린을 공부하고 있는 로라는 「타임」지에 실린 뜬금없는 기사를 발견하고 서둘러 할머니 댁으로 향한다. 형식을 강조한 기존의 회화 기법을 완전히 뒤엎고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구축한 천재 화가로 꼽히는 패트릭 애덤스가 평생 단 한 번 그린 초상화로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작,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모사품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 유명한 작품에 담긴 아름다운 여성은 바로 로라의 할머니, 엠마였다. 할머니에게 여러 번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패트릭은 엠마가 첫 아이를 낳고 다시 본격적인 화가 생활로 복귀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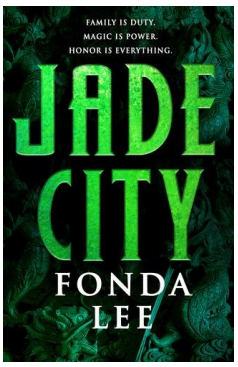
던 1913년, 처음 만난 날 초상화 모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남편 올리브와 애정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지도 2년이 지났고 늘 어울리는 무리 내에서 다른 남성과 잠시 데이트를 했지만 그마저도 정리한 상태였던 엠마는 런던 전역에 재능 넘치는 화가로 소문이 자자하던 패트릭을 처음 본 순간 두근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다. 엠마도 솜씨 좋은 화가였지만 늘 자신의 그림에 만족하지 못했고 캔버스 앞에 앉아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지만 결과물은 실망스럽기만 했다. 그런 엠마의 눈 앞에 갑자기 나타난 패트릭은 여자는 물론 수많은 남성들의 마음을 훔친 양성애자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리는 대상에 과도한 친밀감을 느끼면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없다는 나름의 기준으로 절대 사람은 화폭에 담지 않은 패트릭이 평생 단 한 번 예외로 둔 것이 바로 엠마를 그린 일이었다. 그것도 본인이 자청해서, 간절히 원해서 그린 이 초상화는 이후 평생 엠마의 침실에 걸려 혼란스러웠지만 거짓은 없었던 두 사람의 사랑을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단서가 되었다. 그런데 가짜라니? 로라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 그 의혹이 당혹스러웠다. 2년 전, 값비싼 대학 등록금을 감당할 못할 때 할머니의 배려로 이 세계적인 명작을 담보물로 설정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약 의혹을 제기한 예술품 감정가 이완의 주장대로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가짜로 판명 날 경우, 로라는 지금까지 등록금으로 대출한 돈을 모두 한꺼번에 상환해야 한다. 할머니의 평생 사랑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나버릴 위험성도 당연히 엄청났다. 평생 예술가로 살았던 할머니를 생활력 없고 무책임하다며 대립했던 엄마와 달리 음악가로 꼭 성공하고 싶은 로라는 이제 막 시작된 학업을 이어가기 위해, 그리고 할머니의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60여 년 전, 패트릭이 초상화 작업을 시작하던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엠마는 죽을 때까지 지키려 했던 가슴 아픈 진실을 꺼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다.

블룸스버리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나중에는 그룹의 핵심이 된 엠마는 패트릭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어느 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임을, 그리고 그의 연인이 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의 곁을 맴돌다 사라진 수많은 연인들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 나타난다. 답답한 런던 사회를 떠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찾아간 파리에서 만난, 제롬이라는 남자였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낸 제롬이 계속 거슬렸던 엠마는 결국 그와 패트릭을 사이에 두고 벌이는 신경전에 지쳐 혼자 런던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때는 1923년, 패트릭이 마침내 벼르고 벼르던 엠마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해였다. 패트릭의 작업 과정을 초기 구상 단계 외에 전혀 보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로라는 그 때 유일하게 패트릭의 곁을 지킨 제롬을 찾아내고, 그에게서 초상화에 얽힌 이야기와 함께 뜻밖의 사실도 듣게 된다. 애증과 복수, 아까운 재능을 엉뚱한 곳에 쏟아야 했던 사람들의 충동이 겹치면서 빚어진 안타까운 사건을 시대적인 상황과 함께 결합시킨 특별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엘라 캐리(Ella Carey)는 대학에서 음악과 19세기 여성 소설, 현대 유럽 역사를 공부하고 현재 호주에서 글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The House by the Lake』, 『From a Paris Balcony』, 『Paris Time Capsule』 등이 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JADE CITY
가제 : 옥의 도시
저자 : Fonda Lee
출판사: Orbit
발행일: 2017년 11월 7일
분량 : 512 페이지
장르 : 판타지/범죄스릴러소설

* 2017년 Locus Award 베스트 판타지 소설 선정!
* 네뷸라상 Best Novel 후보작!

옥이 전사의 타고난 힘과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귀중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지는 케콘 아일랜드와 이 특별한 섬의 중심 도시 잰룬을 무대로 한 두 집안의 뜨거운 격전이 판타지 소설과 화려한 액션의 요소가 결합된 박진감 넘치는 3부작 시리즈로 만들어진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완성된 '제이드 시티'는 시대가 변하면서 급격히 교체되기 시작한 도시의 문화만큼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잰룬의 두 집안, '노 픽'과 '마운틴'의 구성원들을 주인공으로 이들의 오랜 갈등과 옥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대로 보여준다. YA SF 소설로 이름을 알린 작가는 20세기 홍콩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배경에서 펼쳐지는 운명의 대결을 무술 유단자답게 생생한 액션 장면들로 가득 채워 더욱 흥미진진하게 그린다.

옥이 전사의 힘을 북돋아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옥이 존재한다고 알려진 곳은 전부 파헤쳐지고, 정식으로든 암시장에서든 엄청난 값에 거래되고, 옥을 차지하기 위한 절도와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사람의 목숨마저 앗아가는 사태가 수 세기 동안 지속된 잰룬은 '그린 본' 전사들 덕분에 겨우 평화를 찾았다. 사람들은 옥만 소유하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에 불과하다. 명예로운 그린 본 전사가 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옥에서 발산되는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고 이를 자신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다. 바로 그 유전자를 지닌 카울 센이 '노 피크' 부족의 수장을 맡으면서 옥을 쟁취하기 위한 무차별적인 갈등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새로운 수장이 된 카울 센의 아들, 카울 랜은 노 피크의 전설로 남은 부친만큼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섞인 존경을 얻어내지는 못했다. 단단히 결속되어 있던 조직 체계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이들처럼 타고난 전사의 유전자를 지닌 또 다른 부족, '마운틴'은 카울 센의 권력으로 잰룬 시의 정치와 경제를 모조리 거머쥔 노 피크 부족의 기세에 어쩔 수 없이 짓눌려 있었지만 도시를 쟁탈하겠다는 야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부친보다 못한 아들, 카울 랜이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노 피크 부족이 흔들리는 기미가 느껴지자마자 때를 기다리던 마운틴의 수장, 아이트 마다시는 마침내 본격적인 공격을 준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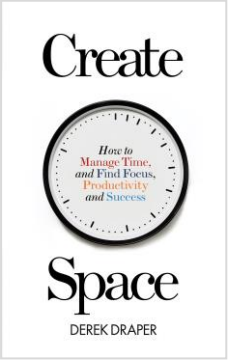
다. 목표는 하나. 노 피크 부족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이들이 움켜쥔 옥을 빼앗아 잰룬 시는 물론 케콘 섬 전체를 손 안에 넣는 것이다. 조상들이 힘겹게 만든 평화인 줄도 모르고 나태한 생활과 권력을 휘두르는 일에만 심취해 있던 노 피크의 차세대 젊은 전사들은 마운틴 부족의 공격과 맞닥뜨리자 쩔쩔 매며 허둥댄다. 그러나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는 일. 각자에게 주어진 전사의 기술을 적극 발휘하여 가족을 지켜내야만 한다.

카울 랜의 동생으로 스물일곱 젊은 나이에 도시의 수석 행정관 자리에 오른 카울 힐로는 다혈질에 충동적인 인물이지만 형을 도와 균열이 찾아온 조직 내부를 단단히 결속시키고 호시탐탐 옥을 훔치려는 외부 세력들을 쫓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특별한 유전자로만 만들어질 수 없는 진정한 그린 본 전사가 되기 위해 혹독한 훈련과 교육을 마친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일도 카울 힐로의 몫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분명 변화하고 있었다. 자동차, 텔레비전 같은 새로운 기계가 도시에 속속 유입되고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 옷가지들, 문화가 잰룬 시민들의 일상에 파고들어 아버지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노 피크 부족이 독점한 옥을 노리는 야심만만한 젊은이들의 시도 역시 그칠 줄 몰랐다. 신기술의 놀라운 힘을 제대로 활용하기로 한 마운틴 부족은 특별한 유전자가 없어도 누구나,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옥의 신비한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옥을 갖기 위한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 오른다. 조직 내부에서도 불거지는 전통과 새로운 사고체계의 갈등, 대대적 공격을 준비하는 마운틴 부족에 맞서 카울 집안은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대부>와 <왕좌의 게임>, <와호장룡>의 매력적인 요소가 골고루 섞인 특별한 이야기가 저마다 허점을 지닌 다채로운 인물들을 통해 흥미롭게 펼쳐진다.

<저자 소개>

폰다 리(Fonda Lee)는 YA 소설 『Zeroboxer』, 『Exo』로 명성을 얻은 캐나다 출신의 작가다. 무술 유단자이자 기업 사업 기획자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는 글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CREATE SPACE
가제 : 공간을 확보하라
저자 : Derek Draper
출판사: Profile Books
발행일: 2018년 9월 6일
분량 : 320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처세

인류의 역사를 80살까지 산 한 사람의 인생에 비유하면, 인류는 거의 80세에 이르러서야 바퀴, 글쓰기 등의 문명에 비로소 가까워져, TV는 80세 인생에 불과 지난 주 등장한 물건이고, 구글, 아이폰 같은 건 불과 몇 분 전 불쑥 끼어들었다. 현대인들은 너무 갑자기 변화해 버린 삶의 방식과 사방에서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허우적대느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겐 생각할, 그리고 성장할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책은 성장하고자 한다면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확보하고, 창조할 줄 알아야 한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플라톤, 소크라테스부터 칸트와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이 '공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파고든다. 공간이란 크게 세가지로 정의될 수 있다. 물리적인 공간(자연, 우주와 같은) / 정신적 공간 (논리적 사고와 추상적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의미이다. 이 책은 생각하기 위해, 움직이기 위해, 또 존재하기 위한 공간이 우리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설하고 있다.

<목차>

Part 1. 생각을 할 수 있는 공간 (Space to Think)
Part 2. 행동할 수 있는 공간 (Space to Do)
Part 3. 연결할 수 있는 공간 (Space to Connect)
Part 4. 존재할 수 있는 공간 (Space to Be)
Part 5. 공간을 만들어 나가기 (Creating Space)

For one thousand generations human beings lived in a world of limitless space. Life was hard but it was lived at a much slower pace, in a less frantic, less demanding way.

In contrast, for our generation space – to think, do, connect or just be – is in desperately short supply. We face a torrent of information, choice and change. But it doesn't have to be like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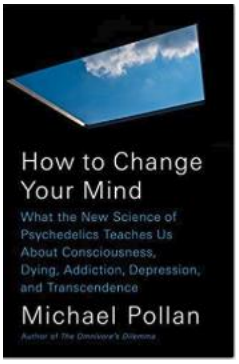
Through twelve fascinating stories inspired by his work as an international leadership consultant and executive coach, Derek Draper shows how to create the space you need and take back control.

Informed by over a decade of hands-on experience at the most senior levels of business, the book draws on the best of both classical and cutting-edge psychological and behavioural thinking. Each story contains models, tool and tips that have been used successfully in some of the world's biggest organisations to bring about improved performance and meaningful change. The author shows clearly how you can use all of this to make fundamental and sustainable breakthroughs in your own life, that will lead to better performance at work and a more fulfilling and successful career. It will help you become the best leader you have it in you to be.

<작가 소개>

데릭 드레이퍼(Derek Draper)는 리더십 컨설턴트, 비즈니스 심리학자, 경영자 코치로 12년 넘게 활동했다. YSC 컨설팅에서 영국과 유럽 지역의 관리 컨설턴트이자 비즈니스 개발 부문의 장으로 근무했으며, 현재는 CDP 리더십 컨설팅을 설립하였다. 이전에는 정치 분야에서 활동하며 만델슨 경을 보좌하며 중도 성향의 씽크탱크이자 압력 단체인 프로그레스(Progress)를 설립했다.

제목 : HOW TO CHANGE YOUR MIND
가제 : 마음을 바꾸는 약
저자 : Michael Pollan
출판사: Penguin Press
발행일: 2018년 5월 15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과학/의학사/에세이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2018년 5월 최우수 도서
* "포괄적이며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책. 저자는 최고의 과학 저술가로 꼽히면서도 필요하면 물질주의적 해석만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방식이라는 고정관념을 기꺼이 타파할 줄 안다." - 「가디언」
* "환각제를 농담거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고 벗어나기 힘든 좁은 시각을 해결해줄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심층적인 조사 결과" - 「보스턴 글로브」

20세기 중반, 서구 사회를 뒤바꿔놓은 두 가지 대형 사건이 벌어졌다. 성격도, 원인도 완전히 다르지만 더 이상 이전의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는 공통분모가 있는 이 사건은 바로 핵폭탄의 등장과 환각제의 발명이다. 지금은 환각제라는 이름만 들어도 대다수가 뭔가 불법적이고 온전한 정신이 아닌 사람들만 이용하는 나쁜 물질로 인식하지만 처음 등장한 당시에 핵폭탄에 맞먹을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이유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었다. 음식과 식생활에 관한 저서로 여러 번 베스트셀러 작가 대열에 오른 저자는 '마약'으로만 치부되는 환각제가 의학과 과학에 몰고 온 놀라운 발전을 상세히 설명한다. 다른 약물로는 치료하기 힘든 우울증과 중독, 불안과 같은 질환에 놀라운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환각제의 특성과 더불어, 정신질환으로 정식 진단을 받은 환자들뿐만 아니라 건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심리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자가 직접 환각제의 효과를 체험해보면서 느끼고 알게 된 사실들을 통해 생생하게 전한다. 환각제를 둘러싼 뿌리 깊은 오해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처음 세상에 등장한 후 시대에 따라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활용되어 차근차근 짚어본다.

대표적인 환각제 LSD는 1938년에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에서 일하던 과학자가 뜻하지 않게 합성한 물질이다.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는 약을 만들던 그는 어쩌다 '리세르그 산'으로도 불리는 이 물질을 만들어냈고,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전혀 몰랐다. 5년이 지나 모르고 직접 극소량을 먹게 된 후에야 그는 자신이 정신작용에 아주 강력한 영향을 주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한 가지 유명한 환각제인 실로시빈은 합성 물질이 아닌, 수천 년 전부터 지구상에 존재했던 자연 물질이다. 바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수백 년 전부터 의식을 치를 때 사용했고 아즈텍 사람들이 '신의 살'이라 칭한 버섯에 함유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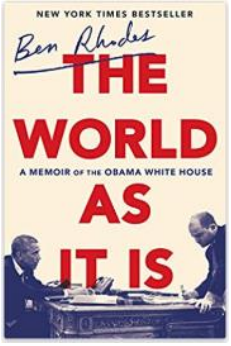
물질이다. 1955년, 맨해튼에서 한 은행가와 아마추어 진균학자가 맥시코 남부에서 이 신기한 버섯을 채취하고 2년 뒤 「라이프」 지에 버섯의 희한한 환각 효과를 발표하면서 마침내 전 세계에 그 존재가 널리 알려졌다. 저자는 오로지 심리적인 문제로만 치부되던 정신 질환이 뇌 화학물질의 이상작용에 따른 결과라는 엄청난 인식 변화를 일으킨 것이 바로 환각제 덕분이라는 사실과 함께,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마법의 약'으로 여겨지던 이 약물들이 1960년대 중반부터 사회문제의 근원처럼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 지위가 확 바뀐 과정을 상세히 추적한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 환각제의 진가를 다시 밝히려는 과학자, 의사들의 노력에 의해 새로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게 된 배경과 새로 시작된 연구를 통해 밝혀진 환각제의 놀라운 효과를 소개한다. 환각제를 맹신하고 무조건적으로 열광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과장된 효과는 냉정하게 지적하고 실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결과를 중심으로 하면서 저자가 직접 경험한 일들을 빠짐없이 공개한다. 저자의 세밀하고 열정적인 이 탐구 과정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책이며, 환각제, 인간의 뇌에서 벌어지는 정신 작용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새로운 문
1장. 르네상스
2장. 자연사: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다 / 맺음말
3장. 역사: 1차 물결
 1부. 약속
 2부. 추락
 맺음말
4장. 여행기: 지하 세계로의 여행
 여행 1. LSD
 여행 2. 실로시빈
 여행 3. 5-MeO-DMT ('두꺼비 독')
(이하 생략, 총 6장과 에필로그로 구성)

<저자 소개>

마이클 폴란(Michael Pollan)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Cooked』, 『Food Rules』, 『In Defense of Food』, 『The Omnivore's Dilemma』, 『The Botany of Desire』를 쓴 저술가로 「뉴욕타임스 매거진」에도 오랫동안 글을 기고해 왔다. 하버드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글쓰기 강사로도 일해왔다. 2010년 「타임」 지가 뽑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됐다.



제목 : THE WORLD AS IT IS
가제 : 대통령 연설문 작성가, 오바마의 세상을 추억하다
저자 : Ben Rhodes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 영국, 네덜란드에서도 출간**
*** "저자가 보좌한 대통령의 이상주의가 현실주의로 바뀌는 여정을 성장소설처럼, 허심탄회하게 직접 보고 들은 그대로 전한다. 이례적인 정치 회고록." - 「뉴욕타임스 북 리뷰」**
*** "오바마가 직접 쓴 회고록을 제외하고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책" - 「뉴요커」**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의 인간적인 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드러나는 비공식적인 모습에 관한 이야기는 늘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측근만큼 세밀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고문으로 8년여의 세월을 백악관에서, 세계 곳곳의 순방길에서 함께 한 저자는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시점부터 마지막 순방을 마친 날까지 보고, 듣고, 생각한 것들을 이 회고록에서 우리에게 전한다. 이란과의 핵 협상, 쿠바와의 역사적인 관계 개선 노력, 리비아와 시리아 사태에 미국이 개입해야 할 시점과 개입하지 말아야 할 사안을 정하고 토의했던 피 말리는 시간들을 가장 믿음직한 고문의 한 사람으로 함께 한 사람의 눈으로 재구성하고, 스물아홉 살의 아무 것도 모르던 청년이던 자신이 백악관에 들어가 배우고 성장한 진솔한 이야기도 그 굵직한 사건들 사이사이에 절묘하게 조합하여 함께 들려준다. 2년간 외교 분야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전담하고 2009년 노벨 평화상 수상 연설도 직접 작성한 전문가답게 유려한 문장과 소설처럼 박진감이 느껴지는 구성이 계속 책장을 넘기게 만드는, 흥미진진한 회고록이다.

시카고에서 내내 살던 저자를 뉴욕으로 이끈 건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이었다. 미국이 처한 현실, 미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이야기를 글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정치인들의 연설문을 써보기로 결심한 저자는 독창적인 시각과 탁월한 언어 능력을 인정받아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처음에는 연설문을 쓰는 것으로 한정됐던 업무 범위는 국가안보 고문으로 확대되고 나중에는 오바마의 바로 곁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최측근 중 한 사람이 되었다. 매일 아침 대통령 집무실에서 일일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8년간 오바마 행정부에서 벌어진 중대한 사건, 논란이 된 순간들마다 중심에 있었던 그는 역사적으로 유례 없는 특별한 대통령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깊은 우정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저자의 이야기를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실용적이면서도 이상을 잃지 않았던 대통령이 고집스러운 각국 정부와 제도라는 현실에 부딪혀 좌절하고, 이집트, 시리아, 리비아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위기에 대통령이 각각 어떤 시각으로, 어떤 원칙에 따라 대처하려 했는지 알게 된다. 더불어 저자 자신의 역할이 미국과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좀 더 굵직한 몫을 차지하게 되면서 느낀 막중한 책임감과 불안, 우려도 모두 털어 놓는다. 니코레트 껌을 즐겨 씹고 잠깐 틈이 나면 스크래블 게임으로 긴장을 풀던 대통령의 모습도 친근한 시선으로 전한다. 세계 최강국의 국가 안보 정책을 내부자의 시선에서 파악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한 정권의 안과 밖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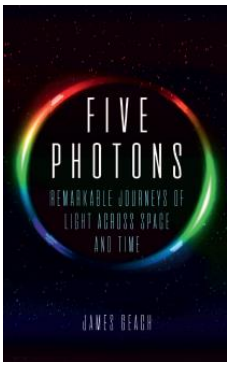
<목차>

1부. 희망: 2007-2010
1장. 시작
2장. 이란과 대화할 것, 빈 라덴을 잡아들일 것
3장. 운명이 달린 공동체 (이하 생략, 총 8장까지)
2부. 봄: 2011-2012
9장. 이집트: 당장 변화가 시작되어야만 한다
10장. 리비아
11장. 빈 라덴: 베일에 싸인 삶 (이하 생략, 16장까지)
3부. 변화: 2013-2014
17장. 불끈 쥔 주먹
18장. 레드 라인
19장. 우익 악마가 되다 (이하 생략, 24장까지)
4부.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것: 2015-2017
25장. 브레이크를 만지작거리다
26장. 반전
27장. 폭탄, 그리고 아이들 (이하 생략, 32장까지)

<저자 소개>

벤 로즈(Ben Rhodes)는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 고문으로 일하면서 연설문 작성, 공공외교 등의 업무를 관장했다. 오바마 대선운동에 참여하기 전에는 국회의원 리 해밀턴(Lee Hamilton)의 보좌관이자 저술가로 활동했다.

제목: FIVE PHOTONS
가제: 다섯 가지 광자
저자: James Geach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8년 9월 10일
분량: 192 페이지
장르: 과학/천문학



* **"우주를 최첨단 기술로 조망한 내용과 함께 인간이 마주하는 현실의 본질은 무엇인지 고찰한 내용을 우아하고 너무나 명료한 문장으로 밝힌 책" - 『The Zoomable Universe』의 저자 칼렙 샤프**
* **"우주가 과거에 어떠했고 지금 어떠한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는 매혹적인 여행으로 독자를 이끄는 멋진 이야기" - 『Five Billion Years of Solitude』의 저자 리 빌링스**

어릴 때 밤하늘을 보면서 누구나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다. "저 별은 어떻게 저렇게 빛이 날까?" 까만 하늘에 점점이 떠서 반짝이는 하얀 빛은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 어떤 빛과도 다른, 신기한 매력으로 우리의 시선을 잡아 끈다. 빛은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곁에 있어서 그 존재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게 하는 이 빛의 역할과 역사에 담긴 놀라운 이야기를 발견하게 된다. 천체물리학자인 저자는 현재 인간이 우주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들이 대부분 빛을 분석한 결과에서 비롯됐다는 사실과 함께, 빅뱅이 일어난 시점부터 140억 년 가까이 존재한 빛과 빛을 구성하는 입자인 광자의 기능을 자세히 설명한다.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가장 멀리서 온 빛은 무엇일까? 별은 정말로 어떻게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을까? 저자는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해줄 이야기들과 함께, 한 은하와 다른 은하의 사이에서 우주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블랙홀과 최초의 별이 빛을 내기 전에 신호탄 역할을 했던 고대 전파에 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들려준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물이며 다른 사람을 눈으로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빛 덕분이다. 눈을 뜨고 있어도 거의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실내에서 전등을 켜자마자 눈 앞에 모든 것이 보이는 이유는, 전구에서 나온 빛이 10 나노 초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주변 사물에 닿고 반사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반사된 빛은 안구를 거쳐 눈 뒤쪽, 빛을 감지하는 세포로 전달되고, 이 정보는 시신경을 통해 일종의 생물전기적 자극으로 뇌에 전달된다. 뇌의 시각피질은 쏟아진 정보를 재빨리 해독함으로써 우리는 눈 앞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다. 빛이 닿는 물체마다 제각기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우리는 그 차이를 구분하여 탁자와 의자, 금속과 털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한다. 색깔도 마찬가지다. 익히 알려진 것처럼. 전구를 비롯한 광원에는 모든 색들이 혼합되어 있고, 물체가 그 광범위한 스펙트럼 가운데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는 색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다. 까만 색은 광원에서 나온 빛을 전부 흡수한 것이고 하얀 색은 모두 반사됐다는 의미인 것

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이다. 대체 빛은 무엇이길래 이런 신기한 작용을 할 수 있을까? 태양이든 전구든, 빛은 광원에서 출발해서 다른 곳까지 어떻게 이동할까? 빛이 흡수되고 반사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는 색이 어떻게 생겨날까? 저자는 이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시간과 공간을 건너 흘러가는 빛을 천체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양자물리학과 일반 상대론,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개념들도 빛을 중심으로 쉽게 풀어서 설명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생명이 탄생한 우주의 기원과 특성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과학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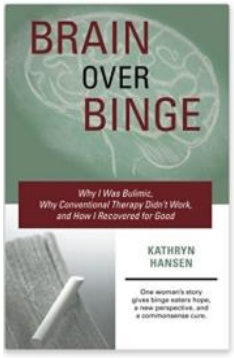
<목차>

1. 빛이란 무엇인가?
2. 오래된 빛
3. 별빛
4. 암흑에너지의 흔적
5. 우주의 신호등 블랙홀
6. 우주의 새벽을 밝힌 전파
맺음말

<저자 소개>

제임스 기치(James Geach)는 영국 왕립학회 소속 연구자이자 하트퍼드셔 대학교 천체물리연구센터에서 관찰 천문학과 은하계 탄생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어 포함 6개 언어로 번역된 『Galaxy: Mapping The Cosmos』가 있다.

제목 : BRAIN OVER BINGE
가제 : 극복 가능해, 폭식증!
저자 : Kathryn Hansen
출판사: Camellia Publishing, LLC
발행일: 2011년 1월 1일
분량 : 328 페이지
장르 : 건강



*** 폭식증을 직접 겪고 이겨낸 저자가 보편적인 치료 방식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힌 책 – 심리적, 정서적인 요소보다 뇌 기능과 폭식의 관계에 주목한 새로운 시각**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먹고, 살이 찌면 어쩌나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다시 먹은 음식을 억지로 토해내고 약을 먹고 배설을 유도하는 행동, 우리가 폭식증으로 익히 알고 있는 이 문제는 대부분 심리적인 문제로 여겨진다. '정서적인 불안' 혹은 '마음 속 깊이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비정상적인 식생활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다. 치료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불안과 충족되지 않은 욕구, 해결 못한 과거는 당사자만 알 수 있기에 반복되는 폭식과 인위적인 구토, 배설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환자가, 힘을 내어 해답을 알아서 찾아내서 극복해야 한다. 과체중에 시달리면서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듯이 폭식증도 이겨내지 못하면 같은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정말 그럴까? 자기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가 폭식증의 근본 원인일까? 6년간 극심한 폭식증에 시달리고 여러 클리닉을 찾아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본 저자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대다수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폭식증의 원인과 치료법이 아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한 저자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폭식증을 파헤치고, 나름의 방식으로 마침내 그 질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수년 째 한 번도 폭식 충동을 느낀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하는 저자는, 이 책에서 증상만으로도 힘든 폭식증 환자들을 더 괴롭히는 사회적인 오해와 부적절한 치료 방식을 지적하고 직접 발견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소개한다.

폭식증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 50 퍼센트가 재발을 경험하고, 치료 후 3년이 경과한 후 추적 조사를 해보면 3분의 1은 매일 폭식 충동에 시달린다는 통계 결과만 봐도 현재의 일반적인 치료 방식이 얼마나 무익한지 알 수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치료에 거듭 실패한 후, 대체 뭐가 문제일까 분석에 돌입했다.

무수한 자료조사 끝에 저자는 식욕을 일으키는 뇌 기능에 주목하고, 말 그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 비정상적인 뇌 활성 신호를 차단시켜 폭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저자가 소개하는 이 새로운 해결 방법은 총 5단계로 구성된다. 폭식 충동을 뇌 하위 구조에서 발생한 신경학적인 오류 신호, 혹은 무시하고 삭제해야 할 신호로 인지하는

것, 뇌 최상위 구조의 기능을 폭식 충동과 분리하는 것, 충동에 반응하지 않는 것,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충동이 가라앉았을 때 찾아오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다. 뇌에서 식욕과 충동을 관장하는 각 부위의 기능에 관한 세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인 신호에 행동으로 반응하지 않는 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있지도 않은 옛 상처나 정서적 결핍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폭식 습관을 떨칠 수 있다는 사실을 단계별로 설명한다. 이와 함께 개개인이 느끼는 자신의 신체 이미지와 자존감, 각종 다이어트가 폭식증에 끼치는 영향도 다각도로 분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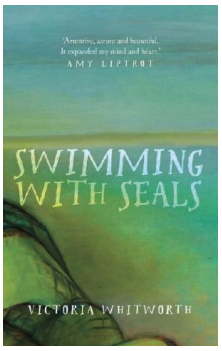
인간 본연의 귀중한 능력인 자유 의지와 자가 통제, 자립적인 능력을 강화하여 명확한 치료법이 없는 골치 아픈 병과 이별하는 법을 용기 있게 소개한 특별한 건강 지침서다.

<목차>

머리말
1부. 내가 겪은 폭식증과 극복기
1. 일상적인 폭식
2. 일상적인 제거 행동
3. 선택, 그리고 결과
4. 치료의 길에 들어서다
5. 내가 겪은 첫 번째 폭식 (이하 생략, 13장까지)
2부. 새로이 깨달은 사실과 회복 과정
14. 폭식과 회복의 진짜 이야기를 파헤치다
15. 정말 회복됐을까?
16. 왜 나는 폭식을 했을까?
17. 맨 처음 폭식 충동을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18. 왜 다이어트를 했을까? 내게 큰 문제가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하 생략, 30장까지)
3부. 치료 방식에 관한 재평가
31. 정상적인 식생활
32. 신체 이미지, 체중, 다이어트
33. 낮은 자존감
34. “극복”
35. 촉발 요소 (이하 생략, 41장까지)

<저자 소개>

캐서린 핸슨(Kathryn Hansen)은 폭식증에 시달리다 극복한 뒤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 매진해 왔다.



제목 : SWIMMING WITH SEALS
가제 : 물개와 헤엄치던 시간
저자 : Victoria Whitworth
출판사: Head of Zeus
발행일: 2017년 11월 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영국 PEN 애커리 상(PEN Ackerley Prize) 결승작**

*** "'꿈에서 보낸 듯한 엽서'처럼 느껴지는 이야기들 더 깊은 세상 속으로 안내하는 매혹적인 책" - 「세인스버리 매거진」**

*** "오크니 해안과 저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케냐의 사바나의 풍경이 선명하고 독창적으로 묘사된다. 신학, 철학, 문학적인 저자의 풍성한 지식을 느낄 수 있다." - 「더 내셔널(The National)」**

다른 사람에게는 잠깐의 놀라움을 선사하고 곧 잊혀지는 장소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꼭 돌아가고 싶은 곳, 유일하게 마음의 평화를 얻는 곳이 되기도 한다. 역사학자이자 소설가인 저자에게는 대학 첫 학기 첫 시험을 마치고 우연히 찾은 오크니 해안이 그런 장소가 되었다. 스코틀랜드 북동쪽, 대자연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오크니 해안은 저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케냐를 상기시켰다. 처음 보자마자 그곳을 고향처럼 마음에 품게 된 저자는 박사학위를 막 취득한 30대 초반, 믿고 의지하던 엄마가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삐걱대기 시작한 삶의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나고자 다시 오크니로 찾아왔다.

결혼과 이혼, 수년 동안 따라다닌 건강 문제를 잠시나마 잊기 위해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파도에 몸을 맡기기 시작한 저자는 매일, 때로는 하루에도 여러 번 바다 수영을 한다. 그리고 매일 거의 같은 장소에서 수영하며 느낀 것들, 오직 물과 자신만 남았을 때 머릿속을 떠다니던 과거의 기억들과 우연히 마주친 야생동물들, 오며 가며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기록했다. 이 책은 4-5년간 오크니 해안에서 매일 수영을 하면서 저자가 쓴 글을 하나로 모은 것이다. 저자 스스로도 다시 읽어보면 꿈 속에서 누군가 보낸 엽서처럼 느껴진다는 짤막한 글 속에는 영국의 중세시대를 연구한 역사학자다운 해박한 지식과 소설가답게 아름다운 풍경을 멋지게 묘사한 글과 더불어 문득 떠올린 저자의 온갖 기억과 상념이 진솔하게 녹아 있다. 늘 똑같아 보이지만 한시도 같지 않고 변화하는 차가운 바다에서 저자의 곁을 수시로 찾아온 물개와의 만남은 픽트 족, 바이킹의 이야기를 비롯해 먼 옛날부터 전해온 민간 설화와 전설을 떠올리게 하는 신비한 경험이 된다.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갈매기와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불쑥 등장하던 범고래의 이야기는 분명 실제로 벌어진 일이지만 한 편의 동화처럼 느껴진다.

엄마가 돌아가신 뒤 일년도 채 안 되어 사귄 지 몇 개월밖에 안된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토록 꿈꾸던 오크니 해안 근처에 살 곳을 마련했을 때만 해도 저자는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느꼈다고 전한다. 박사 과정을 마친 뒤 원래는 미국으로 건너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었지만 엄마의 죽음은 모든 계획을 일시에 중단시킬 정도로 저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어쩌면 도피할 곳이 필요해서 그렇게 서둘렀을지도 모르는 결혼은 종교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남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성당에 다니긴 했지만 믿음이 깊지 않았던 저자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떠먹이듯 강요하는 믿음 앞에서 이별을 예감했다고 이야기한다. 결국 이혼을 하고, 저자는 드넓은 바다에서 깊은 상실감을 달랜다. 딸 아이를 임신했을 때 임신 말기에 찾아온 족저근막염으로 걷기 힘들었을 때도, 그 어떤 약보다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 물과 하나가 됐을 때만큼 고통을 잠재우고 위안이 된 것은 없었다. 그렇게 수영을 하고 또 하면서 예고 없이 찾아온 삶의 아픈 상처들처럼 똑같이 예고 없이 찾아온 소소한 기쁨을 깨달으며 성장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차분하게 이어진다. 바로 앞에 저자가 마주한 풍경이 펼쳐지는 듯한 생생한 묘사와 진솔한 고백, 치유의 과정이 돋보이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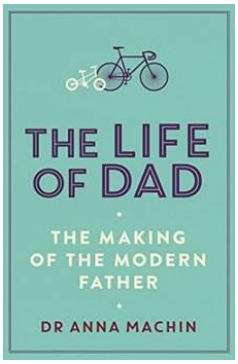
<목차>

- 머리말 외 소제목 없음

<저자 소개>

빅토리아 휘트워스(Victoria Whitworth)는 역사가이자 베스트셀러 소설가다. 주로 영국의 중세시대 문화와 사회를 연구해 왔다. 저서로는 『Dying and Death in Later Anglo-Saxon England』, 『The Bone Thief』, 『The Traitors' Pit』, 『Daughter of the Wolf』등이 있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THE LIFE OF DAD
가제 : 진화 인류학자가 알려주는, 아빠의 탄생
저자 : Anna Machin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8년 4월
분량 : 320페이지
장르 : 인문/사회

* 핵가족 사회, 맞벌이 부부가 대다수인 사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절실해졌지만 어렵고 낯설기만 한 아빠의 역할에 관한 분석
* 10여 년 간 아버지의 역할을 연구하고 시대에 맞는 아버지상을 방송과 강연을 통해 알려온 대인관계 전문가의 유익한 조언

아빠가 되는 일은 어찌 보면 지극히 일반적인 일이지만,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만큼 엄청난 경험이기도 하다. 사춘기를 지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마음을 빼앗기고, 태어나 처음으로 가까운 사람을 잃는 경험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영향력이 큰 일이 바로 아빠가 되는 것이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 지금처럼 아빠들이 아이를 돌보고 키우고 지원하는 일에 열의를 다한 적도 없었다. 공동 육아가 오랫동안 보편적인 일상이던 사회와 달리,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아이가 생기는 일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하고 가족 구성원의 수가 서너 명으로 한정되고 직장 때문에 주거지를 수시로 옮겨 다녀야 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데 반해 복지 혜택은 갈수록 줄어가는 현 시대에서, 아빠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그리고 아이의 발달과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더욱 주목 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사회에서 갓 아빠가 된 사람들이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낯설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심리학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아빠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 아빠가 되면 삶이 어떻게 바뀔까? 내 아이에게 나는 어떤 아빠가 될까? 다른 아빠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아기와 보다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화 인류학자로 일하면서 바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이 시대 아빠들이라면 누구나 떠올릴 수밖에 없는 궁금증과 갈등, 난관에 대해 해답을 제시한다. 신경과학, 내분비학, 행동 생태학, 심리학, 인류학, 유전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밝혀진 최신 정보를 토대로, 저자는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전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 아빠라는 역할이 처음 형성된 시기의 일들이 오늘날 어떤 영향을 남겼는지 분석하는 한편, 아빠가 된 후 시작되는 놀라운 생리학적인 변화, 유전자와 아빠의 유형, 아빠의 일상적인 습관과 행동이 후손에게 주는 영향 등 흥미진진한 사실을 전한다.

과학적인 분석과 함께, 저자는 임신과 출산부터 정해지는 아빠의 역할이 사회와 역사에서 형

성된 결과인지, 생물학적으로 알아서 찾아가는 일인지 살펴보고 아프리카, 중국, 북유럽, 미국 등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의 다양한 아빠의 역할과 그 배경을 분석한다.

기저귀 가는 법이나 우유 먹이는 법을 알려주는 육아 실용서와 달리, 보다 넓고 큰 관점에서 아빠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를 다각도로 조명하면서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하는 알찬 정보서다.

<목차>

1부. 처음으로 아빠가 되다
1장. 특이한 유인원
2부. 수정과 임신
2장. 뇌가 생각하는 아기
3장. 생물학적 시급성?
4장. 임신한 아빠
3부. 탄생
5장. 유연한 아빠
6장. 누가 아빠야?
4부. 출산 직후 몇 주
7장. 아가야, 사랑한다!
8장. 둘에서 셋(또는 넷, 다섯)이 되면
5부. 재미난 일들은 지금부터
9장. 아빠들 무리
10장. 아기,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위해
11장. 아빠가 된다는 것

<저자 소개>

애나 마친(Anna Machin)은 옥스포드 대학교 실험심리학부에서 10년 가까이 진화인류학자로 연구를 이어왔다. Channel 4/CPL의 리얼리티 쇼 'Married at First Sight'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대인관계나 과학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해 왔다.

추가 업데이트

제목 : I AM DYNAMITE!

가제 : 인간 프리드리히 니체: 나는 다이너마이트다!

저자 : Sue Prideaux

출판사: Tim Duggan Books

발행일: 2018년 10월 30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전기/역사

I am not a man, I am dynamite!

God is dead!

Become who you are.

What doesn't kill me makes me stronger.

Possession usually diminishes the possession.

Convictions are more dangerous enemies of truth than lies.

Never trust a thought that occurs to you indoors.

To give birth to a dancing star one must first have chaos within.

There are no facts, only interpretations.

*** 영국, 미국,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그리스, 러시아, 중국 계약**

저자는 이 책에서, 니체라는 철학자이자 문헌 학자의 생애에 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바로잡는 동시에 소설을 썼던 필력으로 그의 일생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루터 교회의 목사였던 부친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독실하게 믿는 차분한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어린 시절과 뇌에 병이 들어 평범하지 않게 세상을 떠난 부친이 남긴 커다란 영향, 교사로 활동하던 시절, 고산 지대에서 홀로 외롭게 철학을 탐구하던 시절의 이야기와 독특한 성격에서 누구나 기이하다고 여길 만한 행동을 하다 결국 정신이 무너져 10년을 정신병에 시달리게 된 가슴 아픈 과정에 이르기까지 니체의 모든 삶이 한 편의 소설처럼 묘사된다. 저자는 니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은 물론 사소해 보이지만 그에게 깊은 의미가 있었던 일들을 날카로운 통찰을 담아 흥미진진하게 되살렸다.

니체의 학문적인 삶은 물론 세상에 많이 드러나지 않았던 그의 정서적인 갈등과 고통, 기쁨, 사랑도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풍성하게 담겨 있다. 특히 니체와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삶에 중대

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롭다. 어릴 때부터 니체에게는 영웅이었고 마침내 절친한 사이가 되었지만 사상적인 차이로 결국 멀어진 리하르트 바그너, 니체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놓은 여인 루 살로메, 독일의 국가주의와 반유대주의에 광적으로 빠져들어 니체의 사상과 글을 마음대로 오해석해서 나치의 이데올로기로 바꿔버린 여동생 엘리자베스, 다락방에 갇혀 벙어리로 살다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난 남동생의 안타까운 삶도 함께 접할 수 있다. 철학자들 가운데 가장 잘못 알려진 인물로 꼽을 수 있는 니체의 진짜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뜻 깊은 전기이다.

<목차>

1장. 음악의 밤
2장. 독일 출신의 아테네인들
3장. 내 자신이 되는 과정
4장. 낙소스 섬
5장. 비극의 탄생
6장. 해로운 오두막
7장. 개념을 뒤흔들다
8장. 최후의 제자, 그리고 첫 번째 제자
9장. 자유로운 정신과 그리 자유롭지 않은 정신
10장. 인간적인 너무나도 인간적인
11장. 방황하는 자와 그의 그림자
12장. 철학과 에로스
(이하 생략, 총 22장과 연대표로 구성)

<저자 소개>

수 프리도(Sue Prideaux)는 전기 작가이자 소설가로 제임스 테이트 블랙 메모리얼 상(James Tait Black Memorial Prize)을 수상한 『Edvard Munch: Behind the Scream』과 더프 쿠퍼 상(Duff Cooper Prize)을 수상하고 새뮤얼 존슨 상 결승에 오른 『Strindberg: A Life』 등을 썼다.